

“안전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 되길 바랍니다”

광주 아너소사이터티 141호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나눔문화 확산 동참 약속...장기인증 서약도 마쳐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 ‘선한 영향력’ 전파 희망**

“지금처럼 힘든 순간에 더욱 나눠야죠. 나눔이란 그런 것입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 지난달 25일 광주 아너소사이터티 141호 회원에 가입했다. 송 교수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원을 약속하며 나눔 문화 확산 동참을 약속했다.
송 교수는 광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본격적인 안전 전문가로서의 삶은 서울에서 대부분을 보냈다. 약 17년간 경희대와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등에서 실무와 함께 겸임교수직을 맡아왔다.
그러던 중 2년 전, 고향 광주에 정착해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직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송 교수는 “인생 2막은 고향 광주에서 함께하고 싶어 내려왔다. 고향에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직업 특성 상 죽음을 자주 바라봐야 했던 송 교수는 “가까이서 바라본 죽음은 ‘빈손으로 떠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지 않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삶이라고 생각하는

다”며 “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죽고 나면 돈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누며 사는 것이 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송 교수는 눈을 감는 순간 신체 장기를 기증하고 떠날 수 있도록 장기기증서약까지 마친 상태다.
안전 전문가로서 냉철한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송 교수는 재직 중인 광주대 건축학부 안에서는 재밌고 험같은 교수님으로 통한다.
가진 것을 나누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송 교수는 “기성세대가 이룬 업적은 사회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현장의 실무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실제 송 교수도 재직 중인 광주대 건축학부는 현장 실무형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송 교수가 학부장을 맡은 뒤로 자격증과 취업 중심의 학교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기탁된 1억원이 ‘안전 약자’에게 돌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는 지난달 25일 광주 아너소사이터티 14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왼쪽부터 구제길 광주 아너소사이터티 회장, 송창영 교수, 박철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아갔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여성까지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통하는 이들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기부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건축학부 교수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생활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더 힘들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외국의 경우 기부 문화가 다채로운 데 비해 ‘예향’ 광주는 비교적 기부 문화가 적은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기부를 결심할 수 있도록 광주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아너소사이터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객 개인기부자 모임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로 1억원 이상을 일시 또는 5년 내 완납 약속 시 회원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김단인가



해양경찰교육원, 생존 수영 전문가 양성 교육

해양경찰교육원은 2일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전국 초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경찰청과 교육부(학교체육진흥회)가 공동 주관·운영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생존 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교원들의 생존 수영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생존 수영 교육의 이해, 부력 체험, 수중 적응, 선박 탈출 등을 내용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280여명의 초등학교교원을 대상으로 2박3일 씩 7기(각 40명)로 운영된다.
이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초등학교생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교원들의 생존 수영 지도 역량 강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성기자



영광군·영광JC, 재활용품 분리배출 합동 캠페인

영광군은 2일 “최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정착을 위해 영광청년회와 협동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져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영광JC 회원과 도시환경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상가와 지역 내 시장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을 전개해 재활용 참여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했다.

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거점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재활용품(예전지, 종이팩) 인센티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진 영광JC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자원순환 정착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군수는 “생활폐기물 발생 시 재활용 문화가 정착된다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며 “깨끗한 영광 이미지 제고와 소중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광주시체육회, '사랑의 헌혈'로 나눔 실천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광주시체육회는 2일 오전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헌혈에 동참했다. 이는 헌혈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웃 사랑 실천과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헌혈차 수급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앞장서 소매를 걸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생명 나눔의 가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겠다”며 “체육인들도 솔선수범해 헌혈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산경찰, 인명구조 아동안전지킴이 감사장 수여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정진관) 여성청소년과(과장 최병길)는 지난 1일 하남파출소를 방문해 인명구조 유공자 아동안전지킴이 2명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최근 어린이공원을 순찰 중에 유서를 써 놓고 자살을 시도하던 치매 노인을 긴급 구조한 아동안전지킴이들에 대해 광산경찰서장의 감사장을 수여하고 하남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유공을 격려했다.
감사장을 받은 한대의 아동안전지킴이는 “근무를 하던 중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을 받게 돼 뿌듯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구하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다른 유공자 이교인씨는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모두 내 손자, 내 손녀라고 생각하고 일한다”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이옥근기자



박백희 목포연동주민자치위원장, 취약계층 생수 기탁

박백희 목포시연동주민자치위원장이 최근 삼복더위 운영 일환에 노출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연동주민센터에 생수 1천800병을 기탁했다.
이번 생수 기탁은 박백희 연동주민자치위원장과 김승남 부위원장이 함께 뜻을 모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연동주민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시원한 생수를 더위에 지친 어르신, 민원인, 공공일자리아의 근로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박백희 연동주민자치위원장은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폭염을 피해 주민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담양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배포

담양경찰서는 2일 “최근 하절기 야간활동이 증가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관내 비닐하우스 등 현장을 찾아 농기계 안전용품 교육과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승인 담양경찰서장은 “하절기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야간에는 통행을 삼가고 외출 시 밝은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권기자

최유리 전남대병원 교수 ‘암 관리법’ 강의



“암생존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까?”
국립대병원 교수가 직접 출연해 건강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유튜브 ‘건강메아리’에 가정의학과 최유리 교수가 최근 출연해 암생존자 평생관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상대 생존율 역시 70.3%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암 수술 후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유튜브에 출연한 최유리 교수는 “암은 완치 관정을 받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높고 고혈압과 당뇨와 달리 투병기간 동안 급성기질 환처럼 빠르게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만성질환과 다르다”며 “긴 치료기간 동안 음식·구토와 같은 치료 부작용과 통증·피로와 같은 신체증상 뿐만 아니라 우울·불안과 같은 심리적 반응과도 싸워 이겨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극복했다’, ‘완치됐다’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암생존자의 경우 같은 연령과 성별을 가진 일반인에 비해 이차암의 위험도는 약 1.1-1.6배 이르는 등 약간 높다”며 “유전적 성향과 환경·생활 습관, 치료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관리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이차암 검진의 기본 전략으로 누구나 받아야 하는 암검진은 물론 생활습관으로 생길 수 있는 이차암 검진, 암 치료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이차암 검진 또한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갑염성 질환, B형 간염의 재 활성화, 대상포진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 예방접종 또한 꼭 필요하다”며 “암 생존자의 금연과 절주는 물론 운동, 식이조절, 표준체중 유지 등 관리법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가 출연한 ‘암 생존자 평생관리법’ 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병원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복기자

호남대 대학원생 장예추씨

한국웰니스학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호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주임교수 허은주) 중국인 유학생 장예추(석사 3학기) 씨의 석사학위 논문 계획서가 한국웰니스학회(학회장 강익원)에서 공모한 2022학년도 하반기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예추씨는 융·복합학 분야의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한국웰니스학회는 사람과 사회의 웰니스(웰빙과 휘트니스 합성어)와 관련된 학술활동과 이를 통한 현장에서의 삶의 질 증진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시선에서의 연구결과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제간 연구를 진작시킴으로써 개별학문과 융합학문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학술활동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광주대 ‘도전! 저염식단’ 영양교육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위탁 운영하는 남구 사회복지직접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도전! 저염식단’ 영양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양교육은 평소 짜게 먹는 습관에 익숙해진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나트륨에 대한 이해성을 강조하고 줄이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또한 부재를 이용해 노년기 건강한 몸을 만드는 영양소를 연결하고 색깔하는 활동도 펼쳐졌다. /임재만기자

결혼

- 김병일·강영단씨 아들 재욱군, 김정수(현대자동차 광주 월산대리점) 딸 지연양=6일(토) 낮 12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2층 씨엔홀.
- 신명철·최정숙씨 아들 동운군, 고주석(전 우리은행)·이경숙씨 딸 은선양=13일(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호련아파트 2층.